

혁신도시 기관들, 기술력·인력망 기반 지역주민 생활 돌본다

인터넷진흥원, 생존정보인식 인지로 독거노인 돌봄·임상부 가사돌봄 한전KPS, ICT 디지털 돌봄 체험공간 지원...어르신 키오스크 교육도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각자 지닌 기술력과 인력망을 기반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나주시 지역 임상부와 홀몸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나주시,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양대학교 생존정보연구원 연구센터와 맺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원태 진흥원장과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태원 생존정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진흥원과 나주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임상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협업체 추진한다. 상담부터 예약, 청구, 통계 집계 등 관련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진흥원과 나주시, 한양대 생존정보연구원 연구센터는 '독거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들 기관은 생존정보인식 인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치매 안심마을 1인 가구 80명의 건강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심박 수와 스트레스 정도, 심장박동 이상, 활동량, 넘어짐, 기절 등 상황을 관리받는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고,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안인 저출생과 홀몸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

이원태 원장은 "진흥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이 겪는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홀몸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디지털 기기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고령자들을 돕기로 했다. 한전KPS는 최근 나주시에 '노노(老老)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서 열린 '복지 앱 개발 및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터넷진흥원, 나주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양대학교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제공>

이 기금은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에 ICT 디지털 돌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데 쓰였다.

노인복지관 안에는 고령 이용자가 디지털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공간에는 태블릿PC와 노트북, 키오스크, 빅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가 마련됐다.

고령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키오스크 사용 방법이나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우고 익힌다. 이 기관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시니어 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한전KPS 시민참여단 2기가 낸 지역 상생 사업안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한전KPS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고자 3년째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노노케어' 등을 추진해왔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이 디지털 환경에 더욱 친숙해질 것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직원들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 취약계층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추석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추석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광주·전남 취약계층 가정 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도농 상생을 위한 민간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도시 가정에는 농산물을 전하고 농촌에는 어린이용 유기농 식품 등 가공식품을 전하는 방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출하량 감소' 고추·오이 등 9월 채소값 더 오른다

농촌경제연구원, 가격 전망 생산면적 감소·병해 발생 영향

9월 고추, 오이,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전망에서 태풍 '한남노'의 영향은 빠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농업관측 9월호' 과재 보고서를 통해 이달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청양계꽃고추의 경우 도매가격이 10kg 기준 4만8000원으로 지난해 9월의 2만5400원보다 89.0%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청양계꽃고추의 이달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하면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감소한데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강원과 호남지역 등에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이맛고추의 경우 10kg에 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만6300원과 비교해 10.2%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오이맛고추 가격 상승 역시 출하면적 감소와 병충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파프리카(빨강)는 이달 출하량이 지난해 9월보다 17%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5kg에 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도매가격 2만7300

원과 비교하면 46.5% 비싸다.

애호박도 생산량이 10% 감소하면서 20개에 3만원으로 지난해 9월의 2만5600원보다 17.2%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이 가격도 올라 백다다기오이는 100개에 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8700원보다 19.1%, 취정오이는 50개에 3만5000원으로 지난해 9월 2만7000원보다 29.6%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오이 가격 상승도 생산면적 감소와 병해 발생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고추의 경우 농업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10월 정식(모종심기) 의향 면적이 전년대보다 2%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풍 '한남노' 피해 지원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서홍 본부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6일 오전 진도군 고군면 지역리에서 강풍에 쓰러진 대파밭을 살피고 있다. 태풍 '한남노' 상륙으로 인해 전남지역 농협의 경우 이틀간 벼 침수·쓰러짐 333ha, 발작물 채소 77ha, 배 낙과 116.5ha 등 농업 손해를 입었으며, 전남농협은 장비·인력 지원 등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수자원공사, 곡성·보성·해남 공사 현장 점검

연휴기간 비상연락체계 점검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진한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추진됐다.

곡성과 보성, 해남 등지 주요 공사 현장 위주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단은 연휴 전 잔여 공정 일정과 도로포장 상태 점검, 현장 안전관리,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창민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고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